

# 골프장개발과 환경영향평가

## 1. 골프장의 발달과정과 현황

## 1. 골프의 개념

골프는 한마디로 넓은 대지 위에서 수백m 떨어져 있는 직경 10.8cm의 구멍(홀컵)에 클럽으로 볼(크기는 직경 4.3~4.5cm)을 쳐서 집어넣는 게임이다. 쉽게 말해 가장 적은 횟수로 볼을 쳐서 홀에 집어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체격이나 체력에 의해 결과가 평가되기 보다는 섬세하고 강인한 정신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 종목으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규칙 적용을 각자 플레이어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골프코스는 들판, 구릉, 산림 등 60만~100만 m<sup>2</sup>의 지역에 조형되며, 해변에 만들어지는 해변(seaside) 코스와 내륙에 만들어지는 내륙(inland) 코스가 있다. 코스에는 볼을 처음 치는 출발 지역인 티잉(teeing) 그라운드, 페어웨이(fairway), 러프(rough), 벙커, 워터해저드(water hazard), 그린, 홀 등이 있다. 이 중 페어웨이와 러프를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이라 하고 벙커와 워터해저드를 총칭하여 해저드라고 한다. 코스 경계에 목책이나 말뚝으로 표시하는데 경계 밖을 OB(out of bounds)라 한다. 볼을 쳐서 넣는 구멍인 홀의 수를 정규의 것은 18개로 18홀이라 부르며, 전반의 9홀을 아웃이라 하고 후반의 9홀을 인이라 부른다. 공식 선수권 대회를 행할 수 있는 코스는 전체 길이가 6,500야드(5,940m) 이상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한 홀에 볼을 넣고 나면 다음 티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홀을 향하여 플레이한다.

골프에는 '파'(기준타수)가 있으며 파는 파3, 파4, 파5 등 세 종류, 파3이란 세 번을 쳐서 볼을 홀에 넣는 것이고 파4는 4번, 파5는 5번 쳐서 넣으면 된다는 뜻이다. 남자골프의 경우 파3홀은 거리가 229m이하, 파4홀은 230~430m, 파5홀은 430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는 파3이 192m이하, 파4가 193~366m, 파5가 367~526m로 권장하고 있다. 골프장의 정규 코스는 18개의 홀로 구성되며 홀은 보통 파3홀 4개 파4홀 10개, 파5홀 4개로 구성돼 파72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파3x4=12타 + 파4x10=40타 + 파5x4=20타)=72타가 기본이며 여기에서 기준타수보다 1타 적은 타수로 볼을 홀 컵에 넣는 것을 '버디'라고 하며 기준타수보다 1타 더 치는 것을 '보기'라 한다. 2타 적게 치는 것을 '이글', 2타 많게 치는 것을 '더블보기', '홀인원'은 단 한번에 쳐서 홀 컵에 볼을 넣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골프경기는 단순한 스포츠의 차원을 벗어나 건강증진, 질병예방, 개인과 국가간의 친선교류, 국토의 효율적 활용, 도덕성과 인격의 수련,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의한 부의 재분배와 소비의 건전한 방향유도 등의 특성과 경영·경제·법률·기계·생물·화학·물리·컴퓨터·건축·토목 등의 종합산업이며, 선수 수명이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골프대회와 상금규모가 커 부와 명예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참가자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340562>

배성일, 2006. 골프장 이용객들의 참여동기 및 서비스품질이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골프장 발달과정

골프의 기원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양을 기르던 목동들이 끝이 구부러진 나뭇가지로 돌맹이를 날리는 민속놀이가 구기로 발전했다는 설과 기원전 네덜란드에서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즐겨하던 콜프(kolf)라는 경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한 네덜란드이 콜벤이라는 오늘날 크리켓이나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구기가 14세기경 바다를 건너 스코틀랜드에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15세기에는 골프가 지나치게 성행하여 국민의 무도와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칙령으로 전면 금지하거나 안식일에는 플레이를 금지하였다. 골프는 귀족계급에도 만연되어 왕도 즐겼으며, 16세기 이후에는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는 스포츠로까지 발전되고 영국까지 파급되었다. 골프에 관해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1744년 스코틀랜드에서 지금의 에든버러 골프인협회의 전신이 신사골프협회가 조직되어 경기를 한 것이 골프클럽과 경기대회의 시초이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코스가 있다. 이곳에는 1754년 5월 14일 22명이 모여 'The society of Saint Andrews golfers'를 결성하였으며 경기규칙의 제정, 핸디캡의 통일, 선수권 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 클럽이 영국 골프계를 통할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골프클럽은 1872년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조직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1) 국내

국내에는 1897년 최초로 원산 해변가에 영국인들에 의해 골프장이 만들어졌다. 이 골프장은 일본이 최초 골프장을 만든 시점인 1903년 보다 6년 앞서 만들어졌다. 원산은 국내에 처음 골프가 소개된 곳인 동시에 골프장이 만들어져 그곳이 국내 골프장의 요람지라 할 수 있다. 원산은 조선의 자유무역항 지역으로 서구인들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발생지가 됐다. 때문에 그곳에는 영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1913년 원산근교 갈문반도의 외인촌과 황해도에 골프장이 만들어졌다. 구전에 의하면 '서구인들이 웬 쇠막대기를 들고 물렁물렁한 공을 치면서 조그만 구멍에 넣는 놀이를 했다'고 전한다. 이에 조선인들은 '서양인들도 조선사람들이 즐기는 자치기 같은 놀이를 하는데 의아했다.'고 한다. 그만큼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골프는 낯설지 않게 조선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지만 외국인들이 만든 골프장에는 조선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도 했다.

원산골프장 이후 국내 골프장의 효시로는 효창원코스를 빼놓을 수 없다. 1918년 용산 효창동 부근의 국유지를 차용해 1919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효창원코스는 1921년에 개장했다. 이때 총 투자된 예산은 6천원을 일본인이 설계를 맡았다. 이 골프장 이용객은 일본인들과 외국여행자가 대부분이었는데 과다한 공사비로 적자를 면치 못해 9홀중 7홀만 사용했다고 한다. 효창원코스는 개장된지 2년만인 1923년 그 일대가 공원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옮기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이왕가의 육림 중심지인 청량리였다. 청량리 코스는 前 이문동 안기부 자리로 현재 조선 경순왕이 잠들어 있는 능 자리다. 청량리코스는 착공한지 1년만인 1924년 18홀로 완성되는데 그 해에 사단법인 경성골프구락부가 창립됐다. 경성골프구락부가 창립되면서 청량리코스에서는 전조선 선수권골프대회가 개최됐는데 청량리코스는 국내최초로 18홀이기는 하나 파70에 총 3,942야드에 불과해 골프경기를 치루는데 미흡했다. 그래서 구락부회원을 중심으로 더욱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군자리 즉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 자리가 적격지로 떠올랐다.



군자리코스는 30여만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로 1927년 6월 공사를 시작하여 1929년 6월22일 정식 개장된다. 군자리골프코스의 개장은 한국골프사에 큰 획을 긋는 것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국내최초의 골프장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방에선 최초로 대구골프코스(1923)가 개장되고, 1928년 평양골프코스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만들어진 골프장은 모두 폐쇄됐다. 군자리코스의 개장으로 지방에도 골프장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29년에는 국내 골프장 발상지인 원산 통도 해수욕장 부근에 전장 2,200야드의 9홀 코스가 조성됐는데 이곳이 원산골프코스이다. 이 골프코스는 당시 일본의 한 골프잡지에도 소개됐는데 내용인즉 '입회비는 없고 한달에 5원만 내면 마음껏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일반 사원들이나 은행원들까지 골프를 즐긴다고 보도했다. 원산골프구락부 역시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라졌는데 그 후 복구됐다는 기록은 없다.

원산에 이어 부산에도 골프장이 건설됐는데 이 골프코스는 부산 해운대 수영천변에 있었다. 부산골프구락부는 1932년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동시에 만들었다. 전장 2,610야드 파 33의 9홀인 이 골프장은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인 회원들이 많았다. 특히 인근에는 동래온천과 해운대 온천이 위치해 관광온천 골프장으로 유명했다. 부산골프코스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비행장으로 개조해 사용됐으며 6.25때는 군수용 비행장으로 사용되다가 전쟁이 끝난 후로는 부산국제비행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금은 골프장의 흔적이 없고 그곳에 부산 컨테이너 하치장과 공군비행장 및 육군 53사단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평양과 흥남에 계속해서 골프장이 들어서는 등 골프장 도입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골프장 건설 붐을 이루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1937년 9월 전국 골프구락부 협의기관인 조선골프연맹 창립총회가 경성골프구락부에서 열려 한국골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인해 골프장은 암흑기를 맞는다. 그전에 만들어진 골프장은 모두 농경지와 비행장으로 개조되면서 국내 골프장은 모두 폐장된다. 전쟁으로 인해 조선골프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경성골프구락부가 1943년 폐장된다. 경성골프구락부는 1949년 골프장복구를 시도했으나 6.25사변으로 인해 다시 폐장되어 재건의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6.25사변이 끝난 후인 1953년 경성골프구락부에서 서울컨트리클럽으로 이름이 바뀐 이 골프장은 다시 재건된다. 이 재건 공사는 1954년 7월에 끝나 개장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어린이대공원 부지로 기증돼 1972년 국내 골프의 모든 역사를 간직한 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아울러 1954년 부산컨트리클럽 발기인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에 참여하면서 2년뒤인 1956년 부산컨트리클럽이 서울컨트리클럽에 이어 개장되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골프장업계는 한양컨트리클럽의 창설로 새로운 도약단계에 들어간다. 1964년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된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다름 아닌 한양골프장이었다. 이 골프장은 18홀로 조성됐는데 그 후 36홀로 확장돼 국내 최초의 36홀 코스가 되었다. 또 67년에는 서울 관악산 자락에 18홀 관악컨트리클럽이 개장했다. 70년 3월 정부는 이곳을 서울대 캠퍼스부지로 이전계획이 확정해 70년대 말 관악골프장은 폐장되었다. 이어 관악컨트리리는 재개장하여 경기도 화성군으로 자리를 옮겨간다.

1968년 안양골프장이 개장하면서 국내골프장은 성장의 시대를 맞는다. 안양골프장은 단순한 골프장 오픈이 아니라 조경이 어우러진 명문 골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시켰다. 안양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국내는 골프장 성장기를 맞이한 것이다. 90년까지 국내에는 약 39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섰다.

88올림픽 이후 국내 골프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골프장 관장업무가 각 시,도로 위임되면서 골프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로 90년대 초 국내골프장 업계는 도산과 부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을 거치며 골프장은 다시 살아나면서 번영기를 맞이했고 IMF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였다가 2000년 국내에 골프가 들어 온지 100년 해를 맞이했고 골프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 2) 영국

스코틀랜드 목동들의 놀이는 처음에는 서민들의 놀이로 성행하다가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는 특권층인 왕족만이 할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금지령과 해제 과정을 거듭하다가 국민의 권리가 차차 인정되면서 평민들도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골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로써, 그는 1502년, 퍼스(Perth)지방에 있는 활 제작자로부터 한 세트의 골프채와 공을 구입하여 골프를 즐겼으며, 156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그녀의 남편 찰리 경이 죽자마자 세튼하우스(Seten house)에서 골프를 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1592년, 리스(Leith)지방에서는 일요일에 골프를 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앤드류스의 대주교는 주민들에게 골프를 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한편, 17세기 영국 빈센트(Vincent)지방에 있는, 현재의 웨스터민스턴 학교 운동장이 된 터틀 필드(Tuttle Field)에서 골프 경기가 열렸다고 전해진다. 이 터틀 필드는 학생들에게 업 필드(Up Field)라고 불리어졌던 곳으로 정규코스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때의 경기방식도 현재와 달랐다고 전해진다.

18세기에는, 최초의 골프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협회가 생겨났고, 골프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골프 용품 제작자들이 나타났다. 때문에 훗날 에든버러 골프 클럽의 명예회원이 된 리스의 골퍼들이 진정한 창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1744년에 에든버러 시에서 제공한 실물 크기의 은으로 만든 골프 클럽을 놓고 경기를 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골프 규칙을 만든 사람들은 리스의 골퍼들 (Gentlemen of Leith)이다. 그들은 골프 규칙을 13개 조항으로 만들었고, 사교 위주의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골퍼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이후 1834년에 왕 윌리엄4세가 이 협회의 후원자가 되면서 세인트 앤드류스는 로얄 앤 애인션트 골프 클럽(Royal and Ancient Golf Club)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후 다른 클럽들도 생겨났으며 서로 교류를 갖기 위해 모임을 개최하였다.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는 최초의 경기는 1766년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블랙히스(Black Heath)에서 열렸다고 한다. 세인트 앤드류스, 프레스트윅, 머셀버그, 노스버윅과 같은 클럽에서 경기를 개최하였는데, 세인트 앤드류스 출신의 앨런 로버슨(Allen Robertson)이 1859년에 사망하기까지 가장 훌륭한 선수였으며 최초의 프로 골퍼라고 전해진다.

## 3) 미국

1888년 2월 22일, 뉴욕주 요커(Yoker)시 목장언덕에서 6명의 사람이 모여 난생 처음보는 골프채를 가지고 실험적인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골프가 시작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미국은 1870년대와 1880년대의 '암흑기'를 지나, 미국 역사의 개발과 번영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고, 포드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이렇게 미국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앤드류 카아네기(Andrew Carnegie)가 말한 '고문명의 부속물'인 골프가 들어온 것이다.

미국에서의 골프는 두 사람의 스코틀랜드 이주민 이었던 로버트 록허트(Robert Lockhart)와 존 레이드(John Reid)를 통하여 들어왔다. 1887년 늦여름, 록 허트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골프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의 Fife and Royal Burgh 를 방문했다. 그 때 세인트 앤드류스(St.Andrews)의 로얄 앤 에이션트 골프클럽(Royal and Ancient Golf Club) 전임 프로 골퍼이며, 브리티시 오픈(British Open)에서 네 번이나 우승한 탐 모리스(old Tom Morris)의 상점에서, 그는 6개의 클럽과 24개의 골프 볼을 구입했고, 뮤셀부르크 링크(Musselburgh Link)에서 골프경기를 배웠다. 여기서 록 허트는 기본적인 골프규칙을 배웠다. 1887년 늦은 가을, 영국으로부터 골프 장비가 도착했을 때 록 허트는 레이드에게 선물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골프를 해보았다. 실험적인 골프를 마치고, 그는 친구인 존 레이드에게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골프 역사의 뒤로 사라졌고, 골프를 이어받은 그의 친구인 존 레이드는 '미국 골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록 허트는 '미국에 골프를 처음 들여온 사람'이고, 존 레이드는 '미국에서 골프를 영속하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존 레이드와 그의 친구들은 골프에 대한 첫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부터,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골프를 즐겼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하여 브로드웨이 쇼너드 플레이스(Broadway and Shonnard Place)의 북동쪽에 위치한 30에이커(약 120,000㎡) 넓이의 초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 곳은 독일인의 소유의 초원이었는데, 그 독일인 주인은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그 때부터 존 레이드와 그의 친구들은 매주일마다 골프경기를 하게 되었다. 1888년 11월14일, 독일인 소유의 초원에서 골프 경기를 마친 다섯 사람(John Reid, Harry Holdbrook, Kingman H.Putnam, Henry O.Tallmadge, John B.Upham)은 존 레이드의 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저녁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목적은, 이들이 즐기던 게임을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모임이었다. 여기서 존 레이드는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료애를 다지는 동시에, 유지를 위해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들 것을 제안하게 된다. 여기서 존 레이드는 만장일치로 회장이 되었으며, 다른 동료들은 임원진이 되었다.

이 모임의 이름을 미국골퍼의 원조가 되었던 스코틀랜드의 St. Andrew의 이름을 따서 St. Andrew's라고 지었으며, 골프를 미국에 처음 들여왔던 로버트 록허트(Robert Lockhart)를 클럽의 첫 번째 회원으로 추대했다.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작성했던 Minute Book of the Golf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몇 가지의 규정은 미국 골프의 '대헌장'이 되었다. 바로 이 날, 1888년 11월 14일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골프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1892년 4월, St. Andrew's 클럽은 모임이나 골프 경기의 장소를 북쪽으로 4블럭 떨어진 35에이커(약 140,000㎡) 넓이의 사과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로 옮겼다. 이곳은 주변 경치가 아주 좋았으며, 언덕에서는 뉴저지



(New Jersey)의 허드슨(Hudson)강과 페리사이드(Palisade)가 내려다 보였다. 그들 단체가 '애플 트리 갱(Apple tree Gang)'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곳에는 첫 번째 티와 마지막 그린 가까이에 사과나무가 한그루 있었다. 그곳은 클럽 회원들이 사과나무 가지에 코트와 점심바구니를 걸어놓고 쉬는 휴식의 자리가 되었다. 둘러앉아 쉬는 나무의자는 클럽라운지의 역할을 하였다. St. Andrew's 클럽에서 첫 게임을 했던 저지 오브라이언(Judge O'Brien)은 그 곳의 사과나무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하여, 그가 1894년 쉐넡 힐스 골프클럽(Shinnecock Hills Golf Club)을 방문했을 때, '사과나무가 없어서 골프코스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미국 내에서의 골프는 다른 뉴욕(New York)지방에 전파되기 시작하여, 1894년까지 Meadow Brook on Long Island, Richmond on Staten Island, Ardsley, Knollwood, Rye, White Plains 등의 많은 골프코스가 만들어졌고, 뉴저지의 허드슨강 건너에는 레이크 우드, 패터슨, 몬트 크레어, 모리스 컨트리(Lakewood, Paterson, Mont clair, Morris Country)들이 생겼다.

새롭게 생겨난 골프 코스들은 애플 트리 갱(Apple Tree Gang)과 같이 나인홀(9 Hole)이었다. 1890년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코스들은 18홀로 규모로 커졌으며,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1888년 당시에 St. Andrew's 클럽은 미국에서 유일한 골프장이었는데, 10년 후에는 급격히 늘어나 19세기 말에는 골프 클럽의 수가 1000여개에 달하게 되었다 한다.

자료:

[www.golfboom.com/bbs/content.asp?seq=4&page=1&key\\_id=histo&field=&keyword=](http://www.golfboom.com/bbs/content.asp?seq=4&page=1&key_id=histo&field=&keyword=)

### 3. 골프장 일반현황

#### 1) 골프장의 법적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는 대중골프장업을 정규 대중골프장업, 일반 대중골프장업, 간이 골프장업 등 세 가지로 세분한다.

#### 2) 골프장업 시설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된 [별표 4]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

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3) 골프장 현황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골프장(개장, 미개장 포함)은 2015년 1월 1일 현재 모두 549개소로 파악되었고 (2010년 477개소 8,772홀로(18홀 환산 487개소)), 운영중인 골프장은 회원제가 250개소 (2010년 4,365홀(18홀 환산 242.5개)), 대중이 299개소가 운영 중이다. (2010년 1월 1일 1,972홀로 18홀 환산 109.5개로 총 350개를 돌파했다)

건설 중인 골프장은 모두 34개 (회원제 8개소, 대중 26개소)이며 미착공은 대중 16개소, 회원제 26개소 등 모두 42개소다.

2014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골프장을 이용한 내장객은 모두 57만4천356명으로 2013년 69만3천737명에 비해 11만9천381명이 줄어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골프장 개발은 골프장 과다 개발과 이용객 감소로 과거 대비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골프장 개발방향은 골프장과 함께 다수의 숙박시설, 특히 개별 분양이 가능한 콘도 및 주택 등 주거시설을 동시에 개발하여, 골프장 개발과 함께 투자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것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있다.